

지난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권익성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wonis87@kli.re.kr)

KLI PANEL
Brief

- 본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2013~2022년)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무자녀 부부의 특성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봄.
-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가구특성 및 인적특성을 비교해 살펴보고, 무자녀 부부에서 아내의 노동시장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출산 저해 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봄.
- 청년층 기혼 가구에서 무자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27.1%로 지난 10년간 상승 추세임.
-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가구 및 인적특성을 비교한 결과,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음.
 - 주택점유 형태별로 무자녀 부부의 2022년 기준 자가 비중은 유자녀 부부보다 17.4%p 낮은 34.6%로 주거 불안정성이 무자녀 부부의 출산 저해 요인 중 하나임을 추측해 볼 수 있음.
 -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서울시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22년 45.2%로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이 20%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무자녀 부부에서 아내의 교육 수준은 유자녀 부부의 아내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내의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35~39세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22년 15.2%로 2013년 대비 약 3배 증가해 과거 대비 30대 후반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함.
 - 무자녀 부부에서 아내의 2022년 취업 비중은 유자녀 부부의 아내보다 30.4%p 높은 71.0%로 직장 업무와 출산·양육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유자녀 부부 아내에게 많은 것으로 짐작됨.
- 무자녀 부부에서 취업상태인 아내의 노동시장 특징을 살펴본 결과,
 - 직종별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문관리직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문관리직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 대비 9.4%p 증가한 29.4%로 출산 후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임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음.
 - 아내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무자녀 부부 비중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이 지난 10년간 높은 상승률을 보여 중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아내의 소득계층에서 무자녀 부부 비중이 약 35%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임.
- 무자녀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무자녀 부부 아내의 노동시장 특징별로 출산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임.

1. 배경 및 목적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2023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72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¹⁾
- 과거 결혼 후 자녀를 가지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였지만, 최근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결혼 후 자녀를 갖지 않는 무자녀 부부가 증가하고 있음.
 - 통계청의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 5년 차 이내 신혼부부에서 ‘딩크족’으로 불리는 ‘맞벌이 무자녀 부부’는 28.7%, ‘홀벌이 무자녀 부부’는 15.5%를 차지하며 신혼부부의 절반가량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10년간(2013~2022년)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가 없는 무자녀 부부의 특성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 청년층 기혼 가구를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로 구분해 이들의 가구특성 및 인적특성을 비교해 살펴보고, 무자녀 부부에서 아내의 노동시장 특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출산 저해 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2. 분석자료 및 표본

- 무자녀 부부²⁾와 유자녀 부부는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주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함.
 - 대부분 여성의 출산이 20대 중반에서 30대 후반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가구주 연령을 25~39세로 한정해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를 구분함.³⁾
-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를 활용했으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모든 분석에는 09통합표본 가구 가중치와 개인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함.

〈표 1〉 연도별 분석표본 수

(단위: 가구,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구	961	875	848	806	782	747	707	630	579	531
개인 ¹⁾	1,596	1,370	1,360	1,350	1,290	1,222	1,162	1,038	932	874

주: 1) 개인 표본 수는 가구의 분석표본 중에서 개인 설문에 응답한 남편과 아내의 수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 청년층 기혼 가구에서 무자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2.2%에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며 2022년은 2013년 대비 4.9%p 증가한 27.1%로 나타남(표 2 참조).

1)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산·사망통계(잠정)」, 2024.2.28.

2)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에 관한 정의는 부부의 연령, 혼인 기간, 출산 의향 등을 고려하여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본고에서는 표본 수 확보와 자료의 한계로 무자녀 부부 정의에 있어 가구주의 연령만을 고려함.

3) 통계청의 2023년 출산·사망통계에서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을 살펴보면, 25~29세는 21.4명, 30~34세는 66.7명, 35~39세는 43.0명이지만, 20~24세는 3.8명, 40~44세는 7.9명, 45~49세는 0.2명에 불과함.

〈표 2〉 청년층 기혼 가구의 무자녀 부부 여부 변화 추이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무자녀 부부	22.2	23.5	24.3	21.6	24.1	25.5	23.9	26.1	26.9	27.1
유자녀 부부	77.8	76.5	75.7	78.4	75.9	74.5	76.1	73.9	73.2	72.9

주: 각 연도 09통합표본 가구 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3.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가구특성 비교

- <표 3>에서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가구특성을 비교해 살펴보면,
 - 가구원 수별로 무자녀 부부는 대부분 2명으로 구성된 부부 단독가구이며, 지난 10년간 유자녀 부부는 3명으로 구성된 가구 비중은 증가(42.4% → 56.3%), 4명 이상은 감소했는데(57.6% → 43.7%), 이는 자녀 수 감소의 영향으로 보임.⁴⁾
 - 주택점유 형태별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무자녀 부부의 자가 비중은 34.6%로 유자녀 부부 52.0%에 비해 낮지만, 전세 비중은 48.3%로 유자녀 부부(35.9%)에 비해 높게 나타나 주거 불안정성이 무자녀 부부의 출산 저해 요인 중 하나임을 추측해 볼 수 있음.
 - 주택 종류별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2013년 대비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아졌으며, 무자녀 부부의 아파트 거주 비중이 유자녀 부부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됨(무자녀 부부: 62.3% → 78.6%, 유자녀 부부: 76.1% → 82.6%).

〈표 3〉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가구특성 변화

(단위: %)

		무자녀 부부		유자녀 부부	
		2013년	2022년	2013년	2022년
가구원 수	2명	97.5	100.0	0.0	0.0
	3명	2.1	0.0	42.4	56.3
	4명 이상	0.4	0.0	57.6	43.7
주택점유 형태	자가	35.3	34.6	51.5	52.0
	전세	50.5	48.3	34.7	35.9
	월세 및 기타	14.2	17.2	13.8	12.1
주택 종류	아파트	62.3	78.6	76.1	82.6
	비아파트 ²⁾	37.7	21.4	23.9	17.4
거주지역	수도권	62.1	60.7	51.7	59.1
	비수도권	37.9	39.3	48.3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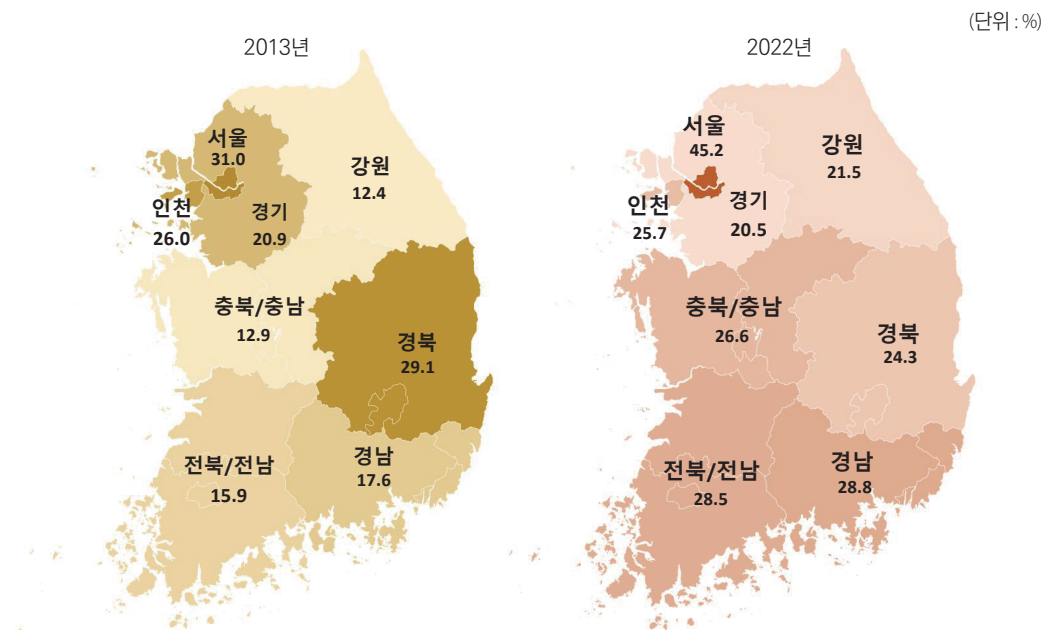
주: 1) 각 연도 09통합표본 가구 가중치 적용.
 2) 비아파트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주택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4) 연도별 유자녀 부부의 취학 및 미취학 자녀 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7	1.6	1.6	1.6	1.6	1.6	1.6	1.5	1.5	1.5

- 다음으로 수도권 거주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무자녀 부부는 62.1%, 유자녀 부부는 51.7%로 두 집단 간 격차는 10.4%p였지만, 2022년 그 격차는 1.6%p로 줄어들어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청년층 기혼 가구의 약 60%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무자녀 부부: 60.7%, 유자녀 부부: 59.1%).
- [그림 1]에서 청년층 기혼 가구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무자녀 부부 비중을 살펴보면,
 -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가진 서울시⁵⁾는 무자녀 부부 비중이 2022년 기준 45.2%로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이 20%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반면 다른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서울시와 달리 2013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됨(경기도: 20.9% → 20.5%, 인천시: 26.0% → 25.7%).
 - 수도권 외 지역은 경북권을 제외하고 무자녀 부부 비중이 지난 10년간 상승했는데, 특히 충청권의 2022년 기준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 대비 13.7%p 증가한 2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한편 경북권은 2022년 무자녀 부부 비중이 2013년 대비 4.8%p 감소한 24.3%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무자녀 부부 비중이 감소한 지역으로 조사됨.⁶⁾⁷⁾

[그림 1] 청년층 기혼 가구의 거주지역별 무자녀 부부 비중 변화



주 : 1) 각 연도 09통합표본 가구 가중치 적용.
 2) 충북/충남은 대전광역시와 세종시(2013년 제외), 경북은 대구광역시, 경남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전북/전남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수치이며 제주도는 제외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5) 서울시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전국 지자체 중 최저수준인 0.59명임(통계청, 2023).
 6) 분석표본에서 무자녀 부부는 유자녀 부부의 1/3 수준이고(표 2 참조), 수도권 거주 비중이 약 60%이므로 비수도권 지역의 표본 수는 상당히 제한적임(각주 8 참조). 따라서 [그림 1]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무자녀 부부 비중 분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7) 2013년, 2022년 지역별 무자녀 부부의 분석표본 수.

	서울	경기	인천	충북/충남	경북	경남	전북/전남	강원
2013	48	48	16	22	22	14	12	4
2022	33	43	11	16	14	10	14	1

- 다음으로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월평균 가구 실질소득⁸⁾을 비교해 살펴보면(표 4 참조),
 - 무자녀 부부의 2012년 기준 월평균 가구 실질소득은 493.8만 원이며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 2021년은 2012년 대비 91.3만 원 증가한 585.1만 원으로 나타남.
 - 유자녀 부부의 월평균 가구 실질소득은 지난 10년간 무자녀 부부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2016년 제외), 이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유자녀 부부의 흠벌이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짐작됨(표 7 참조).
 - 한편 두 집단 간 가구소득 격차는 2017년 86.7만 원으로 가장 크게 벌어졌으며 이후 그 격차가 감소 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14.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됨.

<표 4>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월평균 가구 실질소득 변화

(단위: 만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무자녀 부부	493.8	502.8	490.0	513.8	502.4	604.0	531.5	549.4	593.8	585.1
유자녀 부부	463.7	470.5	475.2	486.8	518.5	517.3	515.2	521.8	567.4	570.4

주: 1) 각 연도 09통합표본 가구 가중치 적용.

2) 월평균 가구 실질소득=(영목소득/당해연도 소비자 물가지수)×100/12.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 저축과 관련해서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특성을 비교해 살펴보면,
 - 우선 가구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표 5>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2012년 대비 2021년의 저축 비중은 줄었지만, 감소 폭은 무자녀 부부에서 높게 나타남(무자녀 부부: 33.3% → 23.7%, 유자녀 부부: 20.6% → 15.3%).
 - 다만 무자녀 부부의 저축 비중이 유자녀 부부에 비해 높은 경향은 지난 1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는 미래를 대비한 저축 여력이 자녀 양육비 부담이 없는 무자녀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임.
 - 다음으로 [그림 2]에서 2021년 기준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저축 주목적을 비교해 보면, 두 집단 모두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대비'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유자녀 부부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 저축 주목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무자녀 부부: 38.3%, 유자녀 부부: 56.0%).
 - 무자녀 부부의 '주택마련' 비중은 유자녀 부부보다 약 1.7배 높은 29.0%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자녀 부부의 낮은 자가 비중과 높은 전세 비중의 영향으로 보이며(표 3 참조), 이를 통해 무자녀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가 주택마련 동기와도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함.

<표 5> 무자녀 부부 여부별 가구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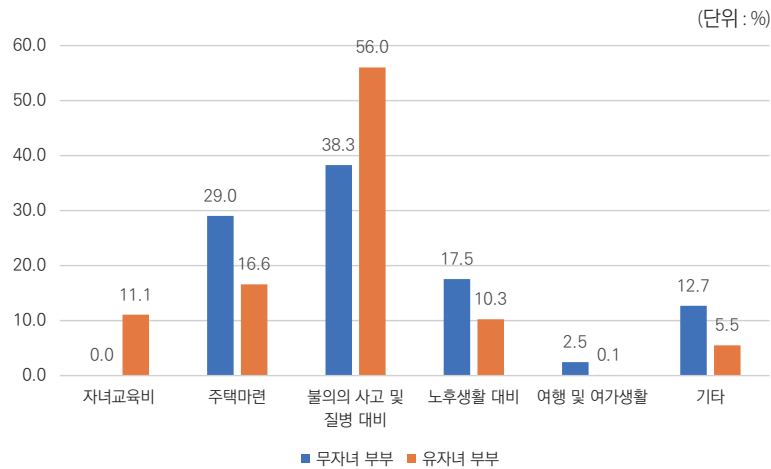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무자녀 부부	33.3	27.6	25.8	26.1	25.7	36.1	23.7	22.9	18.6	23.7
유자녀 부부	20.6	22.2	21.9	20.6	18.3	18.8	19.6	20.7	16.1	15.3

주: 각 연도 09통합표본 가구 가중치 적용.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8)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구소득은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2012년부터 2021년의 월평균 가구 실질소득을 제시함.

[그림 2] 2021년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저축 주목적



주: 1) 각 연도 09통합표본 가구 가중치 적용.
 2) 1순위 저축 주목적 기준.
 3) 기타에는 내구재 구입비, 결혼, 상제비, 사업 자금 마련, 차입금 상환 목적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4.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인적특성 및 경제활동 상태 비교

-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에서 남편과 아내를 구분해 인적특성을 비교해 보면(표 6 참조),
 - 우선 교육 수준별로 남편은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에서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임.
 - 반면 아내의 경우 두 집단 모두 과거 대비 교육 수준이 높아졌는데(대졸 ↑, 고졸 이하 ↓), 2022년 기준 무자녀 부부에서 대졸 이상 아내의 비중은 63.1%, 유자녀 부부에서는 56.8%로 나타나 무자녀 부부 아내의 교육 수준이 유자녀 부부 아내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연령집단별 구성을 살펴보면 청년층 기혼 가구에서 남편, 아내 모두 35~39세 비중이 과거 대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무자녀 부부 아내의 35~39세 비중은 2022년 기준 2013년 대비 약 3배가량 증가한 35.6%이며 유자녀 부부에서도 2022년 기준 65.2%로 증가해 여성의 출산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만혼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청년층 기혼 가구에서 아내의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무자녀 부부 비중을 [그림 3]에서 살펴보면, 결혼-출산 적령기인 30대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이 과거 대비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30~34세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으며 최근 상승 폭이 확대되어 2022년 기준 37.8%로 나타남.
 - 35~39세 아내는 연령집단 중 무자녀 부부 비중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2022년 무자녀 부부 비중은 15.2%로 2013년 대비 약 3배 증가해 연령집단 중 상승률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됨.
 - 25~29세 아내는 무자녀 부부 비중이 월등히 높은 연령집단이었지만 최근 그 비중이 작아져 30~34세 아내와 비슷해지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최근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이며,⁹⁾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 혼인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20대 여성에게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9)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표본 또한 청년층 기혼 가구에서 25~29세 아내의 2022년 표본 수는 2013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줄어 감소율이 30대 아내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6〉 무자녀 부부 여부별 남편과 아내의 인적특성 변화

(단위: %,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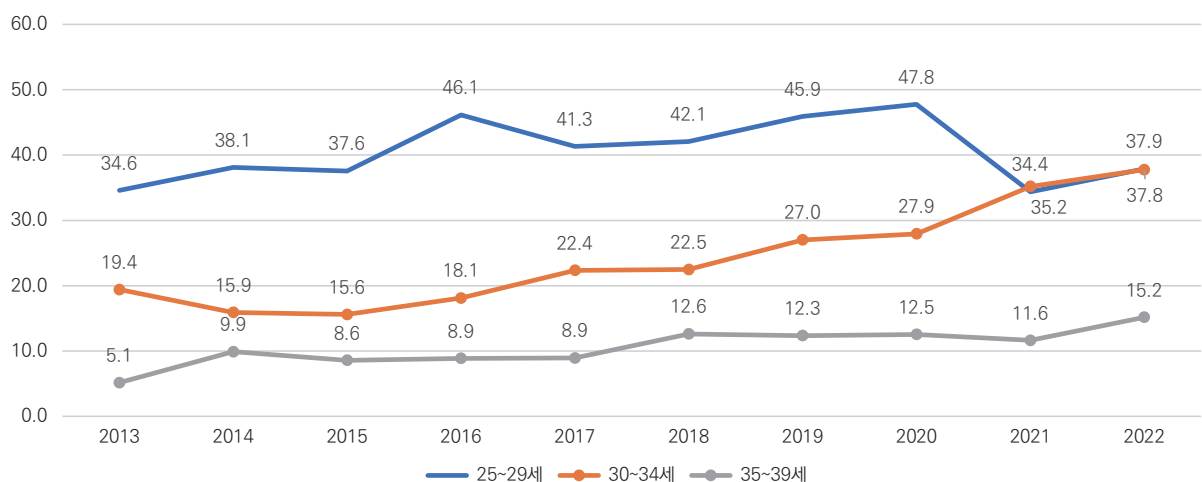
			무자녀 부부		유자녀 부부	
			2013년	2022년	2013년	2022년
남편	연령집단별	25~29세	14.0	5.4	3.0	2.0
		30~34세	54.8	39.0	33.8	17.1
		35~39세	21.2	55.6	63.2	80.9
		평균	33.2	34.9	35.5	36.7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30.0	24.6	27.8	21.2
		전문대졸	15.5	19.0	22.2	19.6
		대졸	47.7	45.7	42.9	49.0
		대학원 졸	6.7	10.7	7.1	10.3
아내	연령집단별	25~29세	22.8	9.9	8.1	5.3
		30~34세	65.5	54.5	51.3	29.5
		35~39세	11.7	35.6	40.6	65.2
		평균	31.5	33.1	34.0	35.6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29.3	13.3	31.1	17.6
		전문대졸	25.6	23.6	26.2	25.6
		대졸	37.2	53.5	38.9	48.9
		대학원 졸	7.8	9.6	3.8	7.9

주: 1) 각 연도 09통합표본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가구의 분석표본에서 응답 가구원만 포함한 수치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그림 3〕 청년층 기혼 가구 아내의 연령집단별 무자녀 부부 비중 변화

(단위: %)



주: 1) 각 연도 09통합표본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가구의 분석표본에서 응답 가구원만 포함한 수치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 다음으로 <표 7>에서 무자녀 부부 여부별 남편과 아내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살펴보면,
 - 두 집단 모두에서 대부분 남편은 취업상태이며, 유자녀 부부에서 휴직 비중이 과거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0.4% → 1.1%).¹⁰⁾
 - 반면 아내의 경우 무자녀 부부의 취업 비중이 유자녀 부부에 비해 높으며 그 격차가 최근 들어 확대되었는데, 무자녀 부부 아내의 2022년 취업 비중은 2013년 대비 17.8%p 증가한 71.0%이며, 유자녀 부부 아내는 40.6%로 2013년 대비 4.0%p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됨.
 - 무자녀 부부 아내와 비교해 유자녀 부부 아내의 취업 비중이 훨씬 낮은 점을 비춰볼 때 여전히 직장 업무와 출산·양육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유자녀 부부 아내에게 많음을 짐작할 수 있음.¹¹⁾
 - 한편 두 집단 모두 남편이 대부분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맞벌이 비중은 아내의 취업 비중과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임.
 - 2022년 기준 무자녀 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70.2%로 조사되었으며, 유자녀 부부는 39.3%로 무자녀 부부보다 비중이 30.9%p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무자녀 부부 여부별 남편과 아내의 경제활동 상태 변화

(단위: %)

			무자녀 부부		유자녀 부부	
			2013년	2022년	2013년	2022년
남편	취업상태별	취업	94.8	94.7	97.9	96.8
		휴직	0.8	0.6	0.4	1.1
		미취업	4.4	4.7	1.7	2.1
아내	취업상태별	취업	53.2	71.0	36.6	40.6
		휴직	0.8	0.9	4.4	7.3
		미취업	45.9	28.1	59.1	52.1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50.9	70.2	35.5	39.3
		홀벌이	49.1	29.8	64.5	60.7

주: 1) 각 연도 09통합표본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가구의 분석표본에서 응답 가구원만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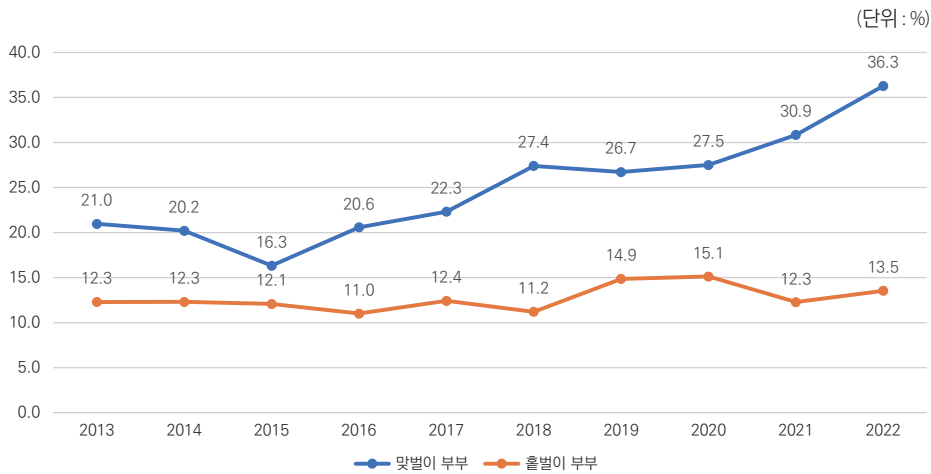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 청년층 기혼 가구에서 맞벌이 부부 여부에 따른 무자녀 부부 비중을 [그림 4]에서 살펴보면,
 - 2022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 대비 약 1.7배 증가한 36.3%로 나타나, 최근 맞벌이일 경우 자녀를 가지지 않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됨.
 - 반면 홀벌이 부부의 경우 2013년 기준 무자녀 부부 비중은 12.3%로 맞벌이 부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후 등락을 반복해 2022년 기준 13.5%로 지난 10년간 홀벌이 부부의 무자녀 부부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10) 전체 유자녀 부부의 남편 표본에서 지난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는 표본은 2.6%에 불과하며, 유자녀 부부 아내는 27.9%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유자녀 부부에서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함을 짐작할 수 있음.

11) 유자녀 부부에서 미취업 상태인 아내의 평소 활동을 살펴보면 '가사를 돌보고 있음' 45.2%, '어린이를 돌보고 있음' 52.3%로 가사 및 육아가 대부분을 차지함.

[그림 4] 청년층 기혼 가구의 맞벌이 여부별 무자녀 부부 비중 변화



주: 1) 각 연도 09통합표본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가구의 분석표본에서 응답 가구원만 포함한 수치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5. 무자녀 부부 아내의 노동시장 특징

- 앞서 살펴봤듯이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에서 남편의 취업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아내의 경우 자녀의 유무에 따라 취업 비중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표 7 참조).
 - 일반적으로 출산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남편보다는 아내의 근로조건이 크게 작용하므로 무자녀 부부에서 취업상태인 아내의 노동시장 특징을 살펴봄.
- 우선 <표 8>에서 무자녀 부부에서 취업상태인 아내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 무자녀 부부 아내의 약 75%는 상용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상승 추세로 2022년 기준 13.1%로 조사됨.
 - 비임금근로자는 2013년 14.2% 이후 등락을 반복했으며 최근 하락 추세를 보여 2022년 기준 10.2%로 조사됨.
- 무자녀 부부 아내의 직종별¹²⁾ 분포를 <표 9>에서 살펴보면,
 - 서비스직(12.8% → 23.4%)과 생산직(0.9% → 7.4%) 비중은 2013년 대비 2022년 증가했고 전문관리직(44.4% → 36.8%)과 사무직(41.4% → 32.4%) 비중은 감소했지만, 2022년 기준 무자녀 부부에서 취업상태인 아내의 약 70%는 전문관리직 혹은 사무직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을 중심으로 청년층 기혼 가구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을 [그림 5]에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모두 지난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비중이 상승 추세로 나타남.¹³⁾
 - 특히 전문관리직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그 비중이 2013년 대비 9.4%p 증가한 29.4%로 나타나, 출산 후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관리직 또한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2)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적용.

13) 청년층 기혼 가구에서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이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이지만, 서비스직과 생산직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이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함.

〈표 8〉 무자녀 부부 아내의 종사상 지위 변화

(단위: %)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
2013	76.8	9.0	14.2
2014	69.3	19.3	11.4
2015	69.3	18.8	10.9
2016	86.8	6.7	6.5
2017	74.1	13.9	11.2
2018	77.5	8.4	14.1
2019	75.0	8.9	16.1
2020	73.1	11.6	15.3
2021	77.8	11.9	10.3
2022	76.7	13.1	10.2

주: 1) 각 연도 09통합표본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가구의 분석표본에서 응답 가구원만 포함한 수치임.

3) 무자녀 부부에서 취업상태인 아내만을 대상으로 작성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표 9〉 무자녀 부부 아내의 직종 변화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2013	44.4	41.4	12.8	0.6	0.9
2014	38.7	45.5	12.1	0.7	3.0
2015	36.0	38.3	23.8	0.7	1.2
2016	39.6	38.0	21.9	0.6	0.0
2017	50.3	22.3	26.3	0.0	1.1
2018	38.8	33.7	23.5	0.0	4.1
2019	41.5	36.8	18.5	0.0	3.2
2020	36.7	33.2	23.6	0.0	6.5
2021	35.9	36.6	20.0	0.0	7.6
2022	36.8	32.4	23.4	0.0	7.4

주: 1) 각 연도 09통합표본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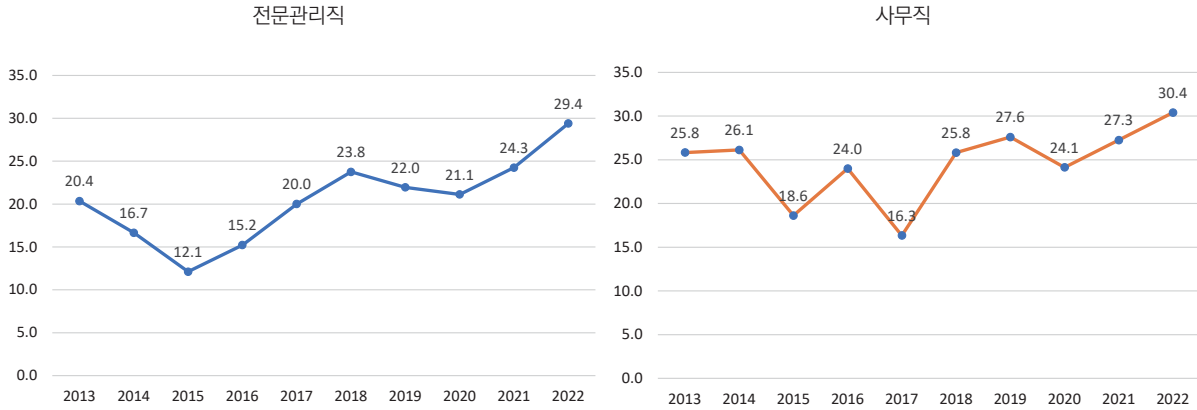
2) 가구의 분석표본에서 응답 가구원만 포함한 수치임.

3) 무자녀 부부에서 취업상태인 임금근로자 아내만을 대상으로 작성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그림 5] 청년층 기혼 가구에서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 변화

(단위: %)



주: 1) 각 연도 09통합표본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가구의 분석표본에서 응답 가구원만 포함한 수치임.
 3) 무자녀 부부에서 취업상태인 임금근로자 아내만을 대상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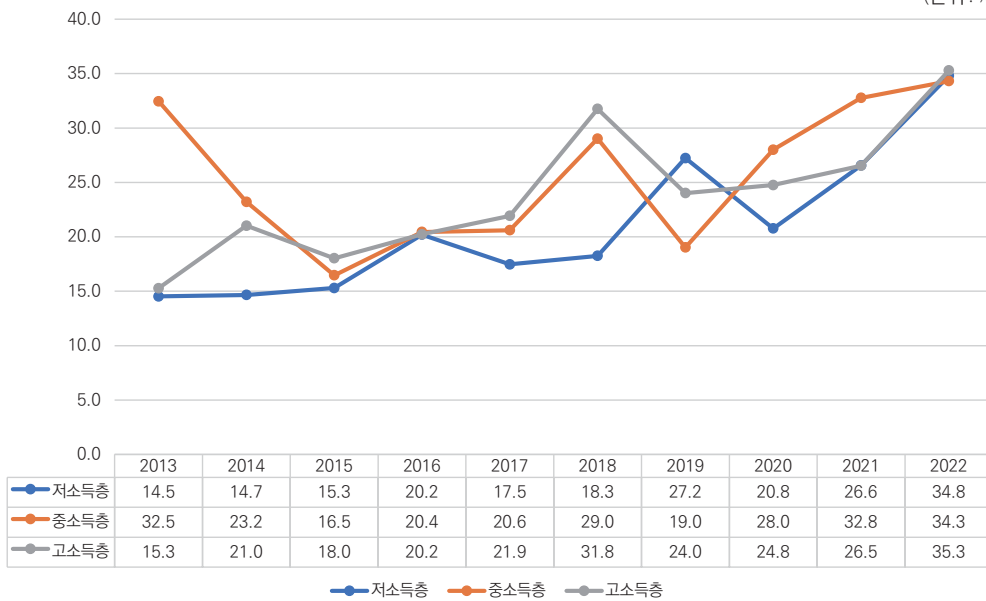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 다음으로 [그림 6]에서 청년층 기혼 가구 아내의 월평균 실질임금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으로¹⁴⁾ 나누어 무자녀 부부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

- 우선 중소득층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 32.5% 이후 2019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다 이후 상승 추세에 있으며, 2022년 기준 34.3%로 지난 10년간 상승 폭은 1.8%p에 불과함.

[그림 6] 청년층 기혼 가구 아내의 소득분위별 무자녀 부부 비중 변화

(단위: %)



주: 1) 각 연도 09통합표본 개인 횡단면 가중치 적용.
 2) 가구의 분석표본에서 응답 가구원만 포함한 수치임.
 3) 무자녀 부부에서 취업상태인 임금근로자 아내만을 대상으로 작성함.
 자료: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

14)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각 연도 월평균 임금을 3분위로 구분하여 1분위를 저소득층, 2분위를 중소득층, 3분위를 고소득층으로 구분함.

- 반면 저소득층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 14.5%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2013년 대비 20.3%p 상승한 34.8%이며, 고소득층 아내 역시 2013년 대비 20.0%p 상승해 중소득층 아내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임(15.3% → 35.3%).
- 청년층 기혼 가구에서 아내의 소득분위별 무자녀 부부 비중에 격차가 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아내에서 무자녀 부부 비중이 크게 상승해 아내의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소득계층에서 무자녀 부부 비중이 약 35%로 나타남.

6. 요약 및 시사점

- 본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 1~25차 공개용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2013~2022년) 가구주가 25~39세인 청년층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무자녀 부부의 특성과 그 변화 추이를 살펴봄.
 -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가구특성 및 인적특성을 비교해 살펴보고, 무자녀 부부에서 아내의 노동시장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출산 저해 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봄.
- 청년층 기혼 가구에서 무자녀 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승 추세이며 2022년 기준 27.1%로 나타남.
-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가구특성을 비교한 결과,
 - 주택점유 형태별로 무자녀 부부의 2022년 기준 자가 비중은 유자녀 부부보다 17.4%p 낮은 34.6%로 주거 불안정성이 무자녀 부부의 출산 저해 요인 중 하나임을 추측해 볼 수 있음.
 - 수도권 거주 비중을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의 약 60% 정도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유자녀 부부 또한 수도권 비중이 상승 추세로 2022년 기준 무자녀 부부와 비슷한 수준인 59.1%임.
 -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22년 기준 서울시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22년 기준 45.2%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20%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됨.
- 무자녀 부부의 월평균 가구 실질소득은 지난 10년간 유자녀 부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유자녀 부부의 홀벌이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 저축과 관련해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 가구소득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자녀 부부에서 유자녀 부부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래를 대비한 저축 여력이 자녀 양육비 부담이 없는 무자녀 부부에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임.
 - 저축 주목적을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의 '주택마련' 비중은 유자녀 부부보다 약 1.7배 높은 29.0%로, 이를 통해 무자녀 부부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가 주택마련 동기와도 관련이 있음을 짐작케 함.
-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 아내의 인적특성을 비교한 결과,
 - 무자녀 부부에서 아내의 교육 수준은 유자녀 부부의 아내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내의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35~39세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22년 15.2%로 2013년 대비 약 3배 증가해 과거 대비 30대

후반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함.

• 무자녀 부부 아내의 노동시장 특징을 살펴보면,

- 취업상태별로 무자녀 부부 아내의 취업 비중은 2022년 기준 유자녀 부부보다 30.4%p 높은 71.0%로, 직장 업무와 출산·양육 양립의 어려움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유자녀 부부 아내에게 많은 것으로 짐작됨.
- 무자녀 부부에서 취업상태인 아내의 노동시장 특징을 살펴본 결과,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비중은 약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 비중이 36.8%로 최근 하락 추세이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전문관리직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문관리직 아내의 무자녀 부부 비중은 2013년 대비 9.4%p 증가한 29.4%로 출산 후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종임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이 최근 들어 높아지고 있음.
- 청년층 기혼 가구 아내의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무자녀 부부 비중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무자녀 부부 비중이 지난 10년간 크게 상승해(저소득층: 14.5% → 34.8%, 고소득층: 15.3% → 35.3%) 중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아내의 소득계층에서 무자녀 부부 비중이 약 35%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임.

• 무자녀 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일·가정 양립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확대와 무자녀 부부 아내의 노동시장 특징별로 출산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본고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가구주의 연령만을 고려하여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를 정의했으나 향후 혼인 기간과 출산 의향 등을 추가로 고려한 연구로 발전이 필요함.